

들어가는 말

이번 해설은 제가 평소에 하던 해설 방식에 비해

비교적으로 어렵고 과하게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작성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든 이유는

수능 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제대로 공부하고 있으며

이미 1등급 내외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는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문 분석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도저히 감이 안잡히고

선지 분석을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이 방법이 맞는지 불안하고

공부는 하고 있지만 스스로 공부하는 방향이 맞는 것인지, 도움이 되는지

공부를 해도 실력이 도저히 안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3등급 이하의 중·하위권 학생들을 위한 자료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국어 공부에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학생분들’을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해설하는 방식과 방향을 최대한 많이 담고 녹여내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설이 ‘저렇게까지 해야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이렇게까지 분석해 볼 수도 있구나’

혹은

‘나랑 생각이 다른데 저렇게 분석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타겟팅한 중·하위권 학생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머리를 괴롭히면서 분석을 해야하는구나’

‘단순히 눈알 굴리기로 근거를 찾는 게 다가 아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문단 해설과 문장 해설을 나누어 작성했으며

문단 해설에는 실전에서 잡아야할 포인트들을,

문장 해설에는 지문을 분석할 때 꼼꼼히 봐야할 포인트들을

강조했습니다.

자료를 읽고 궁금증이 생기거나 질문하고 싶은 분들과

그리고 오류 및 오타를 발견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https://open.kakao.com/o/sNhAVP0b>

이쪽으로 제보해주시면 됩니다.

집합 의례 지문 해설

사람들은 함께 모여 **집합 의례**를 행한다. 뒤르켐은 오스트레일리아 부족들의 집합 의례를 공동체 결속의 관점에서 탐구한다. 부족 사람들은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생계 활동을 멈추고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聖)과 속(俗)의 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이 상황이 **성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속된 것인지를 판별하는 집합 의례**를 행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스러움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고 그것을 중심으로 약해진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재생한다**. 집합 의례가 끝나면 부족 사람들은 **가슴속에 성스러움을 품고 일상의 속된 세계로 되돌아간다**. 이로써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에 불과했던 **생계 활동이 성스러움과 연결된 도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집합 의례’라는 것에 대해서 뒤르켐의 관점을 설명합니다. 화제 잡아봅시다. 키워드는 이리보고 저리봐도 ‘집합 의례’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결속의 관점’이라는 것도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지문은 일단 집합 의례라는 것에 대해서 공동체 결속의 관점을 통해 설명할 것 같습니다.

화제를 잡았으니 한 문장씩 들어가 봅시다.

사람들은 함께 모여 **집합 의례**를 행한다. 뒤르켐은 오스트레일리아 부족들의 집합 의례를 공동체 결속의 관점에서 탐구한다.

집합 의례라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 나오지 않았습니디. 일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라는 정도만 알 수 있네요. 그리고 뒤르켐은 부족들의 ‘집합 의례’를 ‘공동체 결속의 관점’에서 탐구했다고 해요. 일단, 집합 의례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뒤에는 ‘집합 의례’라는 것을 통해 공동체가 어떻게 결속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군요.

부족 사람들은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생계 활동을 멈추고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聖)과 속(俗)의 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이 상황이 **성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속된 것인지를 판별하는 집합 의례**를 행한다.

집합 의례를 행하는데 ‘언제’ 행하나요?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집합 의례를 행하네요. 그리고 성과 속의 분류 체계라는 기준을 통해 상황의 성/속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판단 과정이 집합 의례라고 하네요.

집합 의례가 뭔지 조금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부족 사람들이 문제 상황에 성과 속의 분류 체계로 상황의 성/속을 판별하는 게 집합 의례라고 하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어떻게 공동체 결속과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계속 읽어봅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스러움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고 그것을 중심으로 약해진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재생한다**.

아 상황이 성스러운지 속된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성스러움을 깨닫고 그것을 중심으로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재생’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집합 의례가 끝나면 부족 사람들은 **가슴속에 성스러움을 품고 일상의 속된 세계로 되돌아간다**. 이로써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에 불과했던 **생계 활동이 성스러움과 연결된 도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집합 의례를 결과를 제시해줍니다. 성스러움을 품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생계 활동이 성스러운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해요. 집합 의례를 통해 성스러움을 깨달았으니 맞는 말이네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뒤르켐은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가 기존 도덕 공동체의 재생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창출할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우애와 같은 **새로운 성스러움을 창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구성한 집합 의례**다. 뒤르켐은 **새로 창출된 성스러움이**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속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서로 결속할 수 있는 도덕적 의미**를 제공할 것이라 여긴다.

앞에서는 부족 사회의 집합 의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 문단에서는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를 제시하네요. 예시까지 나오니까 꼭 주목해 주시구요. 그리고 비교지점을 잡아줘야겠다는 느낌이 팍팍 오죠? 앞 문단에서 등장한 집합 의례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연결될지 체크해 줍시다. 한 문장씩 볼게요.

뒤르켐은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가 기존 도덕 공동체의 재생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창출할 것**이라고 본다.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는 기존의 도덕 공동체 재생에 더해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제시된 부족 사회의 집합 의례는 그냥 성스러움을 중심으로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재생할 뿐이었는데 현대 사회는 새로운 도덕 공동체가 창출되네요! 집합 의례의 결과에서 비교지점이 하나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우애와 같은 **새로운 성스러움을 창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구성한 집합 의례**다.

예시까지 등장하네요. 현대 사회에서 집합 의례를 통해 새로운 도덕 공동체가 창출되는 프랑스 혁명을 설명해줍니다. ‘새로운 도덕 공동체 창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려는 출제자의 눈물겨운 노력이니 우리는 거기에 응해야합니다!

자유, 평등, 우애와 같이 새로 창출된 성스러움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구성한대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아! 부족 사회에서도 성스러움을 중심으로 도덕 공동체를 재생

했는데 여기도 성스러움을 중심으로 도덕 공동체를 구성하네요. 비교지점 또 잡힙니다. 계속 내용적으로 연결돼요. 그렇지만 부족 사회의 경우는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스러움을 깨달아서 그것을 중심으로 묶였지만 현대 사회의 경우는 '새로 창출된' 성스러움입니다.

도덕 공동체도 새롭게 창출되었으니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기준도 새로 창출된 성스러움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 사회의 집합 의례와의 비교지점을 잘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뒤르켐은 새로 창출된 성스러움이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속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서로 결속할 수 있는 도덕적 의미를 제공할 것이라 여긴다.

역시나 그 성스러움이 서로 결속할 수 있는 도덕적 의미를 제공한다고 해요. 공동체 결속의 관점까지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분석할 거 뜯을 대로 뜯어봅시다. 부족 사회든 현대 사회든 '속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집합 의례를 행하고 도덕 공동체의 결속을 꾀하는 것은 공통점으로 잡을 수 있겠네요.

혹시나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전에서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각 문단과 문단의 연결성, 비교지점, 화제 이런 것들을 직접 지문을 뜯으면서 느껴보세요. 이렇게 큰 것부터 세밀한 포인트들까지 찾고 분석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독해력 자체가 올라가고 실전에서 굵직한 포인트들, 출제와 직결되는 포인트들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실전에서는 내용 정리와 더불어 이 해설지 상에서 문단 아래 작성된 해설(이러기도 애매한 포인트)정도만 주목하셔도 충분합니다. 내용을 읽으면서 간단한 비교지점을 잡아주면 더 좋겠죠?

파슨스와 스텔서는 이러한 이론적 통찰을 기능주의 이론으로 구체화한다. 그들은 성스러움을 가치라는 말로 바꿔 표현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치가 평상시 사회적 삶 아래에 잠재되어 있다가, 그 도덕적 의미가 뿌리부터 뒤흔들리는 위기 시기에 위로 올라와 전국적으로 일반화된다. 속된 일상에서 사람들은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이해관계를 구체화한 목표와 이의 실현을 안내하는 규범에 따라 살아간다. 하지만 위기 시기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들의 특수한 이해관계에서 보편적인 가치로 상승한다. 사람들은 가치에 기대어 위기가 주는 심리적 긴장과 압박을 해소하는 집합 의례를 행한다. 그 결과 사회의 통합이 회복된다. 파슨스와 스텔서는 이것이 마치 유기체가 환경의 압박으로 인해 흐트러진 항상성의 기능을 생리 작용을 통해 회복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본다.

앞에서 제시한 집합 의례에 대한 뒤르켐의 관점을 구체화한 입장이 파슨스와 스텔서의 이론입니다. '구체화'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앞 문단들의 내용이 이 문단과 연결되겠죠? 분석할 때는 이 포인트들을 세세하게 잡아줍니다. 실전에서는 '공동체 결속의 관점에서 보는 집합 의례'라는 화제만 잡고, 혹은 '집합 의례'라는 핵심 키워드만이라도 제대로 잡고 이 파&스의 이론이 어떻게 집합 의례를 설명하는지에 따라 정보만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문을 분석 중입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뜯으러 가봅시다.

파슨스와 스텔서는 이러한 이론적 통찰을 기능주의 이론으로 구체화한다.

네 화제가 이어진다고 대놓고 말해주는 친절의 끝판왕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읽고 집합 의례에 대한 뒤르켐의 입장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은 실전에서도 떠올려 주셔야 합니다.

그들은 성스러움을 가치라는 말로 바꿔 표현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치가 평상시 사회적 삶 아래에 잠재되어 있다가, 그 도덕적 의미가 뿌리부터 뒤흔들리는 위기 시기에 위로 올라와 전국적으로 일반화된다.

여기서도 제대로 연결고리를 잡아줍니다. 성스러움을 가치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한대요! 뒤르켐의 성스러움은 뭐였나요? 부족 사회, 현대 사회 모두 공동체 결속의 기준이었습시다! 모두 성스러움을 중심으로 도덕 공동체를 결속시켰죠. 이 문장을 봤을 때 '성스러움 -> 가치'라는 것만 체크하지 말고 성스러움의 정의까지 같이 떠올려봅시다. 뒷 문장을 읽으면서 이 포인트를 잡을 겁니다. 뒤에서 다시 언급할게요.

그리고 이 가치는 '위기 시기'에 올라와서 전국적으로 일반화된다고 합니다. 가치가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부족 사회의 집합 의례가 문제 상황에 일어난다는 점을 떠올려 볼 수도 있겠네요. 아직 감이 안 잡힌다면 뒤에 문장까지 마저 읽어보면서 다시 봅시다.

속된 일상에서 사람들은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이해관계를 구체화한 목표와 이의 실현을 안내하는 규범에 따라 살아간다. 하지만 위기 시기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들의 특수한 이해관계에서 보편적인 가치로 상승한다.

부족 사회의 사람들도 속된 세계에서 살아갔죠. 그리고 집합 의례를 통해 성스러움을 가슴에 품고 속된 세계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속된 일상에서 사람들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살아가네요. 비슷한 흐름입니다. 크게 중요한 비교 포인트는 아니지만 눈에 보이니까 간단히 언급했어요.

일단 속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위기 시기에 보편적인 가치에 관심을 둔다는 걸 체크하고 넘어가볼게요.

사람들은 가치에 기대어 위기가 주는 심리적 긴장과 압박을 해소하는 집합 의례를 행한다. 그 결과 사회의 통합이 회복된다.

네. 집합 의례를 행한대요. 뒤에 기대어? '가치'에 기대어! 이 가치는 위기 시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죠? 그럼 집합 의례는 위기 시기에 가치를 통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군요. 아! 그러면 아까 뒤르켐의 집합 의례에 대한 내용에서 부족 사회의 집합 의례를 설명할 때 문제 상황에 성/속을 판별하는 집합 의례를 행했고 그 결과 성스러움을 깨닫고 성스러움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결속한다고 했다는 내용과 비슷하다는 점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그치만 더 중요한 건 성스러움 - 가치를 통한 내용상 연결고리입니다. 아까 파&스는 뒤르켐의 성스러움을 바꿔서 가치라는 말로 표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뒤르켐의 성스러움은 집합 의례를 통해 공동체를 결속하는 중심점, 기준점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파&스가 제시하는 집합 의례 또한 가치에 기대어 집합 의례를 행하고 그 결과 사회의 통합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성스러움, 가치라는 기준점이 이어지고 집합 의례를 통해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가 통합된다는 점에서 공동체 결속의 관점까지 연결되네요. 화제는 물론이고 내용상의 연결 지점까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공동체 결속의 관점에서 보는 집합 의례'라는 화제를 머릿속에 박아 놓아야만, 성스러움 -> 가치의 포인트도 명확하게 잡아낼 수 있네요. 지문의 연결성도 결국 화제를 모르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줘야 해요. 화제의 중요성 다시 한 번 새깁시다.

파슨스와 스텔서는 이것이 마치 유기체가 환경의 압박으로 인해 흐트러진 항상성의 기능을 생리 작용을 통해 회복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본다.

아 집합 의례를 통해 사회가 통합되는(공동체 결속) 결과가 유기체의 회복 과정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앞에서 나온 내용과 거의 비슷하네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갑시다.

알렉산더는 파슨스와 스텔서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들이 사용한 생물학적 은유가 복잡한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를 탐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사회적 공연론'을 제시한다. 그는 가치를 전 사회로 일반화하는 집합 의례가 현대 사회에서는 유기체의 생리 작용처럼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과정이라고 본다. 현대 사회는 사회적 공연의 요소들이 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요소가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요소들을 융합하는 사회적 공연은 우발성이 극대화된 문화적 실천을 요구한다. 알렉산더가 기능주의 이론과 달리 공연의 요소들이 어떤 조건 아래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융합이 이루어지는지 경험적으로 세밀하게 탐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에는 파&스에서 알렉산더의 관점으로 넘어갑시다. 일단 파&스의 이론을 받아들인다고 했으니 집합 의례를 공동체 결속의 관점에서 설명하려고는 하겠죠? 그런데 파&스의 생물학적 은유가 복잡한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새로운 이론(사회적 공연론)을 제시합니다. 그럼 여기서 비교지점(차이점)이 잡히겠네요. 화제를 기억하고, 어떤 내용이 전개되는지 한 문장씩 읽어봅시다.

알렉산더는 파슨스와 스텔서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들이 사용한 생물학적 은유가 복잡한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를 탐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사회적 공연론'을 제시한다.

문단 해설에서도 말했듯이, 알렉산더가 파&스의 이론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화제와 관련된 내용이 전개될 거라는 점을 바로 생각할 수 있고, 생물학적 은유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그 부분에서 차이가 드러나겠네요. 일단 파&스의 생물학적 은유가 뭐였는지 생각해보고 다음 문장 살펴봅시다.

사실 다음 문장에서 바로 이야기해주긴 하는데, 앞에서 나온 내용을 끌고 내려오면서 글을 읽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ㅎㅎ

그는 가치를 전 사회로 일반화하는 집합 의례가 현대 사회에서는 유기체의 생리 작용처럼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과정이라고 본다.

여기서 드러나네요.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일단 '가치를 전 사회로 일반화하는 집합 의례'라는 점에서 집합 의례의 정의에서는 파&스와 공통적입니다. 앞에서 파&스가 위기 시기에 사람들이 보편적인 가치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에 기대어서(가치를 통해, 가치를 중심으로) 집합 의례를 행한다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유기체의 생리 작용'과 달리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네요. 일단 유기체의 생리 작용이라는 말을 보고 파&스를 떠올리셨다면 잘하신 겁니다. 여기에 더해 알렉산더가 그 유기체의 생리 작용과 달리 집합 의례의 결과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는 점까지 캐치했다면 실전에서는 완벽한 수준의 독해입니다.

그치만 지금은 연습이니까 더 꼼꼼하게 연결시켜 볼게요. 아까 파&스가 집합 의례의 과정 및 결과를 유기체의 회복 과정에 빗대었죠? 그럼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게 뭐였나요? 집합 의례를 거치면 사회 통합이 회복된다는 것이었죠. 이 점을 알렉산더와의 차이점이라고 지문이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파&스는 집합 의례의 결과를 사회 통합 회복이라고 단정한 것이네요! 반대로 알렉산더는 집합 의례의 결과가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구요. 또 이때 말하는 집합 의례는 가치를 전 사회로 일반화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는 같았죠?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봅시다. 그럼 파&스든 알렉산더든 집합 의례가 가치를 전 사회로 일반화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파&스와 달리 알렉산더는 그 결과가 정해져있지 않다고 했으니까 집합 의례를 거치더라도 가치의 일반화, 사회 통합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겠네요? 조금 어렵고 과하다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앞에서 나온 내용들(집합 의례의 정의)과 지문상의 연결고리(파&스와 알렉산더의 비교지점)를 통해 여기까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약간 지적 유희용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주세요. 그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시다.

현대 사회는 사회적 공연의 요소들이 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요소가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앵 갑자기 사회적 공연 요소의 특징을 설명하네요? 뭘 소리인지 감이 안 잡히니 넘어갑시다.

라고 하면 제가 이 자료를 쓰는 의미가 없겠죠. 흐름을 기억합시다. 결국 이 문단은 뭘 말하려고 했나요? 화제에 대한 알렉산더의 관점이잖아요! 그게 사회적 공연론이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파&스와의 비교지점을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사회적 공연의 요소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겠죠? 다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점은 사회적 공연의 정의가 나오지 않았는데 바로 사회적 공연의 요소들을 먼저 설명한다는 부분입니다. 그치만 결국 이 문단만 봤을 때는 (화제와 관련된) 사회적 공연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사회적 공연론'이라는 큰 틀과 관련된 정보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요소들을 융합하는 사회적 공연은 우발성이 극대화된 문화적 실천을 요구한다.

사회적 공연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사회적 공연은 ‘이 요소들을 융합하는’ 거네요. 여기서 말하는 요소들은 당연히 사회적 공연의 요소들일 것이고, 애네들은 분화되고 자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융합하는 게 사회적 공연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발성이 극대화된 문화적 실천을 요구한다’라는 문장이 제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럼 예시나 재진술이라는 장치로 쉽게 풀어 써줄 테니까 우선 넘어가야 해요. 다만, 요소들이 융합하는 것(사회적 공연)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 정도는 캐치해줄 수 있겠네요. 일단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공연의 정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기능주의 이론과 달리 공연의 요소들이 어떤 조건 아래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융합이 이루어지는지 경험적으로 세밀하게 탐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네 분화되고 사회적 공연은 분화되고 자율성을 지닌 사회적 요소들을 융합하는 것이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회적 공연론은 당연히 그 융합 과정을 중요시하겠네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까 화제는 ‘공동체 결속의 관점에서 보는 집합 의례’로 잡아놨는데 이게 도대체 공동체 결속이란 무슨 상관이나?”

일단 사회적 공연론이 복잡한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된 이론이잖아요? 그리고 그 집합 의례의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기도 하구요.

여기서 사회적 공연은, 분화되고 자율성을 지니는 ‘사회적 요소’들을 ‘융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화되고 자율성을 지니는 사회적 요소들과 현대 사회가 다시 묶이죠. 그러니까 집합 의례의 맥락에서 현대 사회의 사회적 요소들을 융합하는 사회적 공연을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융합’이라는 포인트에 주목하면 공동체 결속이라는 점까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역시나 하나의 화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네요! 화제만 제대로 잡아도 정말 기본적인 흐름 자체는 끌고 갈 수 있어요. 실전에서도 사회적 공연론이 집합 의례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 그리고 그게 공동체 결속의 관점에서 논의된다는 점을 같이 생각해본다면 융합이라는 포인트까지 찾아낼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시적인 측면은 물론 세밀한 부분을 공부하다보면 독해력 자체가 올라가서 거시적인 흐름이 더 잘보이고, 그럼 미시적인 측면까지 캐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순환 과정이네요 ㅋㅋㅋ.

현대 사회의 사회적 공연의 요소들로는 성과 속의 분류 체계를 다양하게 구체화한 대본, 다양한 대본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행하는 배우, 계급·출신 지역·나이·성별 등 내부적으로 분화된 관객,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동선을 짜서 공연을 무대 위에 올리는 미장센*,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공연을 광범위한 관객에게 전파하는 상징적 생산 수단, 공연을 생산하고 배포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고도로 분화된 사회적 권력 등이 있다. 그러나 요소의 분화와 자율성이 없는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국가 권력에 의한 대중 동원만 있을 뿐 사회적 공연이 일어나기 어렵다.

이 문단은 문장을 꼼꼼히 살필 부분들이 많지 않아서 내용 정리는 생략하고 문단 해설을 위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단 ‘현대 사회의 사회적 공연의 요소’들의 예시를 짚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과 속의 분류 체계’를 구체화한 대본, ‘대본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행(자율성)’하는 배우, ‘분화’된 관객 등의 부분에서 집합 의례와 사회적 공연의 연결고리, 사회적 요소들의 특징에 대한 예시들을 직접적으로 드러내 줍니다.

성과 속의 분류 체계를 활용한 집합 의례가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집합 의례는 공동체를 결속하는 결과를 낳았죠? ‘공동체 결속의 관점’을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겠네요.

조금 더 가서 생각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의 사회적 공연의 요소들로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제시되었어요. 그럼 저 사회적 요소들이 융합되는 것이 곧 가치의 일반화, 집합 의례, 공동체 결속이라는 것이겠네요. 그럼 저 친구들이 융합되지 않으면 가치의 일반화가 아니겠군요. 다시 말해서 집합 의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적 공연이 제대로 요소들을 융합하지 않으면 공동체 결속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만 따로 볼게요.

그러나 요소의 분화와 자율성이 없는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국가 권력에 의한 대중 동원만 있을 뿐 사회적 공연이 일어나기 어렵다.

이 문단에서 끊긴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역시나 연결되어 있어요.

사회적 공연의 정의부터 떠올려봅시다. 사회적 공연은 분화되고 자율성을 지닌 사회적 요소들을 융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주의 사회는 어때요? ‘요소들의 분화와 자율성이 없’네요. 사회적 공연의 요소들의 특성 자체를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적 공연이 일어나기가 어렵겠군요. 결국 사회적 공연의 정의만 파악했다면 이 부분은 당연한 말인 것이네요,

그리고 현대 사회의 공연 요소들 중에 공연 과정을 ‘총체적으로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고도로 분화된 사회적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주의 사회는 국가 권력이 대중 동원을 합니다. 즉, 통제하는 권력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국가 권력 - 사회적 권력이 비슷한 말이라는 것을 파악할 만한 어휘력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막 엄청 과하거나 전문적인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수준은 아니니까 연습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8번 문항만 해설하겠습니다.

문제

8. 밑글에서 설명한 '사회적 공연론'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수려한 경관으로 유명한 A시에 소각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A시의 시장은 정부의 보조금을 활용하여 낙후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소각장을 유치하였다고 밝혔다. A시 시민들은 반대파와 찬성파로 갈려 집회를 이어 갔다. 반대파는 지역 경제 발전에는 찬성하지만 소각장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고, 찬성파는 반대파가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의견이 갈려 토박이와 노인은 반대 운동에, 이주민과 젊은이는 찬성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중앙 언론은 이 사건이 지역 내 현상이라며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반대파는 반대 운동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서울에 가서 집회를 하려 했지만 경찰이 허가를 내 주지 않았다.

- ① 공연의 미장센이 A시에 한정되어 펼쳐지고 있군.
- ② 공연의 요소들이 융합되어 가치의 일반화가 일어났군.
- ③ 출신 지역과 나이로 분화된 관객이 배우로 직접 나서고 있군.
- ④ 상징적 생산 수단과 사회적 권력이 공연의 전국적 전파를 막으려 하는군.
- ⑤ 배우들이 지역 경제 발전에는 동의하면서도 서로 다른 대본을 가지고 공연을 수행하는군.

해설

① 맞죠. 중앙 언론이 '지역 내 현상(A시 내 현상)'이라며 보도 해주지 않았고,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서울에서 집회를 하려고 했지만 경찰이 허가를 안 해줬으니까요.

② 공연의 요소들 중 '배우'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싸우고 있습니다. 즉, 요소의 융합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역시나 소각장 유치에 대해 찬성 측은 경제 발전이라는 가치를 중시하고, 반대 측은 환경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면서 대립하기 때문에 가치의 일반화가 일어났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③ 당연하죠?

④ 지문 해설에서는 생략했지만, 상징적 생산 수단의 정의가 뭔지 문제 푸실 때는 다들 체크하셨죠?

⑤ 간단하게 그냥 '배우들이 대본에 따라 행동하고 그게 찬성 반대로 나뉘니까 다른 대본이다'라고 풀이해도 됩니다. 그치만 조금 꼼꼼하게, 어렵게 분석해 볼게요. 제가 이 해설지를 통해서 지문 분석, 선지 분석을 강조하려다 보니 TMI스럽게 느껴질 수는 합니지만 머리를 괴롭히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풀이해 봤습니다..

대본의 정의는 성과 속의 분류 체계를 다양하게 구체화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과 속의 분류 체계는 성스러움을 판별하는 기준이라고 뒤르캬의 집합 의례 얘기할 때 나왔었죠? 그리고 그 성스러움이 파&스에서 '가치'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가치를 일반화하는 집합 의례'가 알렉산더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과 속의 분류 체계가 다양하게 구체화되었다는 것은 성스러움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개가 되었다는 뜻이고 그 기준에 따라 성스러움, 가치를 판단하니까 이것은 다양한 성스러움, 가치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겠네요. 그리고 <보기>의 시민들은 ②번 선지 해설에서 말했듯이 각기 다른 가치에 따라 찬성 반대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구요. 그럼 '대본'이라는 것 자체를 '가치'를 다양하게 구체화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군요.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찬/반으로 나뉜 건 그냥 소각장 유치에 대해서 배우들이 대본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현시킨 거 아니야?”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은 배우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현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②번 선지 해설에서 말했듯이 '경제 발전'이라는 가치와 '환경'이라는 가치로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대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과하게 느껴질 수 있는 해설입니다. 그치만 충분히 생각해볼 법하고 '지문 분석', '선지 분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을 못 잡는 분들이 많아서 대충 '이런 게 지문 분석이고 선지 분석이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만든 자료임을 감안해서 해설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분석해보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하구요!